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 여부는 후보자끼리의 타협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토론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토론에 몸을 빼는 후보가 있다면 차라리 안목과 리더십을 길러 다음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다.“

- 케빈리 한국토론대학 교수 -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발족

한국토론대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됴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낮습니다. 해서 토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토론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첫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하는 주최 측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TV 토론회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토론 형식이 후보자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실제 토론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역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정한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론회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평가가 과연 균형 잡힌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이 만난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기획되고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를 토론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평가하는 한국토론대학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케빈리 교수, 허향숙 부교수, 손은영 부교수, 최인자 부교수, 이은주 전문코치

I. 평가의 대상

KBS, MBC, SBS 합동 주최/주관

<방송3사 합동토론 2022 대선 후보 토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시 : 2022년 2월 3일 오후 8:00~10:00

진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II. 평가

■ 총평 : <예상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된 토론회>

- 우려했던 인신공격, 네거티브가 배제된 토론회였음. 김지은 관련 외에는 김건희·김혜경 리스크가 거론되지 않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공세가 거셌지만,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었음. 토론회에서 허용되는 수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수비가 이뤄졌음.
- 토론 참가자가 4명이나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토론, 주도권토론이 잘 이뤄져 4인 후보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토론회로 진행됨.
- 첫 번째 주제를론에서는 부동산을, 주도권 토론에서는 자유주제를, 주제토론 2에서는 외교·안보를, 주도권 토론 2에서는 일자리·성장 문제를 다룸. 현안을 감안할 때 무난한 의제 선정.
- 사회자의 적절한 진행, 토론참가자의 토론회 진행 협조로 무난한 진행.

1. 토론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총평 : 4명의 토론자 모두 토론회의 순서와 의제에 충실함. 우려했던 인신공격, 네거티브가 없는 차분한 진행.

※ 후보별 한 줄 총평

- 이재명 : 기대치에 비해서는 평범했던 모습.
- 윤석열 : 우려에 비해서는 선방.
- 안철수 : 과거 초년생 이미지 탈피.
- 심상정 :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역부족.

1-1. 이재명 후보

총평 : 기대치가 높았으나 그에 비하면 평범했던 모습. 경쟁자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언급을 자제. 대장동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주제에 집중하는 모습. 정책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토론 초반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연이은 질문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 후반부에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여유를 되찾아, 이후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

략하는 모습.

-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선처리, 목소리, 제스처,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등 대체로 큰 문제없었음.
- 하지만 (1) 초반기 대장동 이슈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운 모습, (2) 중간에 평정을 잃고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
- 내용적 측면에서도 각종 이슈와 쟁점들을 다양하게 섭렵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밝힘. 특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약속한 대로 자제함. 대장동 이슈에 함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 모든 이슈에 대해 민생과 경제라는 앵글로 접근하려는 전략으로 접근.
- 하지만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실력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슬로건과 각 이슈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지는 못함. 강한 전략적 인상을 주는 데는 실패.
- 안철수 후보의 질문인 문재인 정부 계승 유무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지나친 거리두기 답변.
- 고유명사의 뜻을 물어 다른 후보자를 공략한 것은 역반응의 가능성도 있었음.
- 주도권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양도.
- 마지막 발언의 초반부는 모두 발언에서도 했던 내용을 반복. 거기에 잠깐 침묵의 시간이 이어져 마지막 발언에서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함.

※ 개선 포인트

-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실력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슬로건과 각 이슈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약 제시가 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차별화의 지점을 명료하게 짚을 것.
- 어느 순간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것.
- 마지막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표현으로 준비할 것.

1-2. 윤석열 후보

총평 :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던 불안정한 모습을 감안한다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임. 심각한 실수나 문제점은 없었음.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함. 하지만, 대통령 후보 토론에 처음 나와서인지 태도, 토론 전략, 토론 내용에서 허술한 모습을 드러냄.

-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시간과 순서를 준수함. 아직은 정치 초년생의 모습.
- 큰 실수는 없었지만, (1) 눈을 자주 감거나, (2) 불필요한 기침, 고갯짓, 손짓이 많았고, (3) 자주 원고를 내려다보면서 의존하거나, (4) 화제에 따라 호불호의 표정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5) 화제에 따라 목소리가 변하거나, (6) 말하는 중에 중문, 복문이 반복되어 스피치의 효과가 반감되는 모습을 보임.
- 내용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방어함.
- 하지만 우선 전략과 그 전략 수행의 실패. 시간의 상당부분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이슈에 관해 할애했으나, 이재명 후보의 선방에 적절하게 추가 공략하지 못했음. 특히 본인이 주도한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이슈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논리 입장 발표에 시간을 넘겨줌.
- 김지은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으면 좀 더 정중하게 하는 편이 좋았을 듯. 마지못해 선심을 쓰는

듯한 사과는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

- 디테일에서 흔들리는 모습. 예를 들어, (1) 주택 청약 만점을 40점으로 답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어봤다”고 실언한 만큼, 이번에는 적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어야 함), (2) 사실 확인 시비가 붙을 발언을 함 (예: ① LTV(담보 인정 비율) 90%까지 높이겠다고 한 적 없다. (공약 발표) 초기부터 80%로 유지하고 있다. ②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폐지 주장한 적 없다.)
-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에 비해 안정된 태도와 화법을 보였으나,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아직은 초보적인 모습을 보임.

※ 개선 포인트

- 헛웃음이나 불필요한 비난성 발언은 자제해야.
- 지나친 눈 껌벅거림, 손짓, 고갯짓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
- 사안에 대한 숙지, 쟁점별 포인트 이해 필요.
- 토론 전략 수정 필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관련 공격 치중)

1-3. 안철수 후보

총평 : 이전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비해 안정된 태도로 토론에 임함. 우선 확인 질문을 하고, 이어 추가 질문에 나서는 방식이 주목도를 높임. 주도권토론에서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4인 후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 하지만 초반기 떨리는 스피치 연출. 한 분야에 편중된 전문가로 보일 가능성.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선처리, 목소리, 제스처,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초반기 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었으나 곧 회복.
-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전의 토론회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안정되고 성장한 모습을 보임. 주제에 벗어나지 않은 차분한 진행.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신에 찬 태도로 임함. 주도권토론에서 4명의 후보에게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 냄. 마지막 발언에 연금개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발언하여 선명도를 높임.
- 첫 질문에서 확인질문을 통해 이슈를 부각하고, 이어 추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몰아가는 모습이 인상적.
- 그러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상식보다는 한편에 집중된 지식을 소유한 듯 보임 (예를 들어, 과학 기술 분야, 에너지 분야...).

※ 개선 포인트

- 상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와 시선을 맞추면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음.

1-4. 심상정 후보

총평 : 그동안 수많은 정치토론의 경험을 잘 드러낸 토론회. 자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여유 있

는 태도로 임함. 각 주제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명료하게 문제점을 제시했음. 성범죄 관련 2차 가해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 하지만, 지지율 때문인지 4명의 후보 중 질문의 양이 제일 적어 주목받지 못했고, 공격에 치중하다가 본인의 차별화 지점을 부각시키는데는 소홀.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선처리, 목소리, 제스처,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등이 무난했음.
- 내용적 측면에서도 현안에 대한 숙지와 각종 관련 데이터의 제시가 자연스러웠음.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하며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 성범죄 관련 2차 가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냈음. 120시간 노동,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함.
- 하지만, 공격에 치중하는 바람에, 본인의 강점인 녹색 대통령, 기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는 실패.
- 정의당 후보이나 정의당을 부각하는 데는 실패.
- 지지율 때문인지 존재감이 떨어졌음. 예를 들어 주도권 토론에서 4명의 후보 중 가장 질문을 적게 받았음.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었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 개선 포인트

- 녹색 대통령, 기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란 점을 구체적인 현안에서 타후보와 차별화할 것.
-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라는 이미지를 타개할 전략이 필요.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총평 : 의제 선정, 무대 장치, 사회자 진행은 무난했음.

- 방송3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토론이라, 접근가능성, 사전 홍보 등에서 문제가 없었음.
- 4명의 토론자를 화면 정면에 배치한 것, 스탠딩으로 처리한 것 좋았음.
- 사회자를 오히려 뒤에 배치한 것이 토론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줌.
- 시간을 분명히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음.
-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화면 뒤의 배경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신경을 분산시킴.
- **토론회 형식**은 모두발언, 주제를론 1 (공통질문,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1, 주제를론 2 (공통질문, 자유토론), 주도권 토론 2, 마무리 발언의 순서. 토론자들이 순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음.
- 첫 번째 주제를론에서는 부동산을, 주도권 토론에서는 자유주제를, 주제를론 2에서는 외교·안보를, 주도권 토론 2에서는 일자리·성장 문제를 다룸. 무난한 의제 선정.
-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 - 답변 - 재질문 - 재답변의 형식이 이어져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줌. 2월 2일 토론회에 비해서는 다이내믹하게 전개됨.

※ 개선 포인트

- 유권자 목소리를 담은 노력이 있어야 함.
- 배경 화면이 고정된 것이 좋겠음.

3. 사회자 평가

총평: 사회자의 역할은 무난했고, 그 진행은 공평했음.

- 사회자의 역할은 합의된 순서를 진행하고, 시간과 각 순서에서의 역할을 고지하는 정도였음. 사회자가 편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음. 적절한 사회자의 개입이 이뤄졌음.
- 필요한 경우 사회자의 직권으로 시간을 더 주거나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토론의 공정성을 어겼다고 생각되지 않음. 오히려 유연한 진행이었다고 판단됨.
-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안철수 후보의 주도적 역할을 칭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자는 절대 중립일 것이 필요함. 전체 토론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지적으로 기록.

※ 개선 포인트

-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 절대 토론자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서는 안됨.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기준

(202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 토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후보자D	후보자E
<내용적 측면>					
각 순서에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					
-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 정리 발언					
쟁점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형식적 측면>					
시간 준수 포함 각종 규정 준수					
상대방 발언 시 경청 및 메모					
적극적 참여 여부					
적절한 시선 처리					
원고 의존도					
간결한 화법					
속도, 성량, 발음, 성조					
단정한 용모 (옷차림 등)					
적절한 제스처					
상대방, 사회자, 청중에 대한 태도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개최기관 / 장소	/
사회자명 / 사회자 평가	/
토론회장 설비	
TV 화면 구성	
토론회 방영 시간	2022년 월 일
토론자 간 실제 토론 시간	총 분
사전 의제수집과 선정	
토론회 진행방식 확정 및 고지	
유권자 참여 (질문 접수)	

3. 사회자 평가

사회자의 진행 (개입 정도)	
토론회 진행 방식 (의제와 순서)	
쟁점 부각	
양자 토론 유도	
질문 및 답변 시간의 제한	
실시간 유권자 참여	

4. 사후 평가

4-1 기존 미디어의 토론회 평가에 대한 한국토론대학의 평가

	미디어 1	미디어 2	미디어 3	미디어 4	미디어 5
토론회 평가 보도					

4-2 한국토론대학이 조사한 유권자의 토론회 평가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유권자 4	